

제2절 김굉필의 교육활동과 서원·사우

1. 김굉필의 교육활동과 호남사람의 학맥*

1) 김굉필의 도학사상과 순천에서의 교육활동

김굉필(1454~1504)의 자는 대유(大猶), 호는 한훤당(寒暄堂), 초호는 사옹(囊翁)이며 본관은 황해도 서흥이다. 1454년(단종 2) 5월 25일 한성부 정릉동에서 태어난 그는 충좌위(忠佐衛) 사용(司勇) 유(維)와 중추원부사 승순(承舜)의 딸인 청주 한씨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의 선세는 서흥의 토성(土姓)으로서 고려 후기에 사족으로 성장하였는데 증조 증곤(中坤)이 조선 초에 공조전서를 지낸 광주(郭珠)의 딸과 혼인하여 처향인 경상도 현풍에 이거함으로써 그곳이 세거지가 되었다. 그후 조부 소형(小亨)이 개국공신 조반(趙胖)의 사위가 되면서 문세와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서의 기반이 보다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1472년 19세 되던 해, 그는 협천 야로현의 순천 박씨(평양부원군 박천상의 4세손인 司猛 朴禮 손녀)와 혼인하였다. 이때 처가에서 가까운 야로현 말곡촌에 작은 집을 지어 일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을 ‘한훤당’이라 했던 것이 평생 그의 호가 되었다.

1474년, 21세 때 김굉필은 광승화 등과 함께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김종직으로부터 그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학』에 의한 영향이었다. 이것은 그 평생 율신(律身)의 교과서가 되었으며, 30세가 넘어서야 이를 손에서 놓았으니 자칭 ‘소학동자’란 별명을 붙인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¹⁾ 그런데 김종직 외에 김굉필의 스승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이 있다. 성주 출신의 지지당(止止堂) 김맹성(金孟性)으로 김굉필 자신이 그의 훈하(訓下)임을 자처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무척 존경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종직에 앞서 그의 첫 스승은 김맹성이었던 것 같다.

1480년(성종 11) 생원시에 합격한 뒤, 41세 되던 해 경상감사의 천거에 의해 유일(遺逸)로 남부참봉이 되어 관료에 들어섰다. 그후 전생서(典牲署)참봉·군자감주부·사헌부감찰 등을 지낸 뒤 형조좌랑으로 있을 때인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를 당하였다. 이때 김종직의 문도로서 봉당을 결성하였다는 죄목으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전라도 순천에 이배된 후 5년간에 걸쳐 그의 학문을 전수하던 중 갑자사화로 인해 마침내 순천 배소에서 최후를 마쳤다. 그런데 그가 무오년 희천에 유배되었을 당시, 김종직 문하의 동문이었던 조위(1454~1503) 또한 가까운 의주에 유배되었다. 그뒤 두 사람은 다시 같은 해에 같은 배소에 옮겨왔으니 그 중 한 사람은 유배지에서 병사하고, 또 한 사람은 사사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즉 김굉필은 그의 죽음에 앞서 1년 전에 병사한 조위의 치상을 치렀

* 제2절 1항목은 조원래(趙浚來) 집필임.

1) 景賢續錄』상, 연보.

다.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이 호남지역에 접목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순천에서의 유배생활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우선 유배지의 후진들에게 비친 그의 면모는 같은 배소의 동료와는 대조적이었다. 그 예를 순천의 지방사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늙은 아전의 이름은 장우동인데 나이 80여 세에 이르렀을 때 구암 이정(1563~1566년 순천부사로 재임 : 필자 주)이 두 선생의 유사(遺事)에 대하여 물었다. 장노리가 말하기를 “내 나이 18~19세 때 조참관은 의주로부터, 김좌량은 회천으로부터 순천부에 이배되어왔는데 조참관은 서문 밖에 살았고 김좌량은 북문 밖에 기거하였다. 또 조참관은 고을 노인들과 자주 어울려 옥천변에 노닐면서 노거수 아래에 돌을 쌓아서 대(臺)를 만들어놓고, 때로는 비독을 두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를 읊조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한편 김좌량은 때때로 홀로 노거수 밑 대 위를 배회하였으나 시 읊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관은 병으로 1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좌량은 마침내 갑자사화를 당하여 변을 당했다.”고 말하였다.(조현범, 『항남악부』, 「張老吏」)

이것은 유배지에서 보인 두 사람의 면모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도학자 김굉필의 행동이 풍류를 즐긴 시문장가 조위와는 전혀 달랐음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는 『증평지』도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음, 김굉필이 이와 같은 풍류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칙신제행(飭身制行)의 엄격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²⁾ 따라서 『증평지』의 편찬자 이수광은, 김굉필이 순천 유배지에서 5년씩이나 보내면서 그가 현지의 유림사회에 남긴 교육의 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김굉필이 배소에서 행한 교육활동은 순천에 유배되어오기 전부터의 일이었다. 평안도 회천에 있을 때 어천에서 찾아온 조광조에게 그의 학문을 전수함으로써 도학정치사상을 심어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배 중에 후진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연산군 치하의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학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므로 평소에 원근에서 모여든 학도들이 집 안에 가득하였고, 날마다 경서를 소지하고 강당에 모여든 사람들로 자리가 부족하여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기치인의 도학이념을 실천궁행 했던 교육의지는 유배지 순천에서도 다름이 없었다. 이는 유희춘이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옥천군수 김립이 찾아와 그의 조부 한훤당 김굉필의 유사에 대하여 서로 말하였다. 한훤당이 순천에 계실 때 나의 선친과 맹권씨가 그분 밑에서 글을 배웠는데 맹권씨의 모친 설씨부인이 자식교육을 위해 정성껏 선생을 대접했다는 것이다. 뒤에 선생이 갑자사화로 참혹한 화를 당했을 때, 연산군의 명으로 가산까지 몰수당해(선생의 치상조차 어렵게 되자) 설씨부인이 상사(喪事)의 비용까지 마련해주었다고 한다.(유희춘, 『희암일기』 권7, 임신 9월 18일)

여기에서 유희춘이 지적한 선친이란 김굉필의 문인이었던 유계린을 말한다. 그는 이적·최충성·윤신·임우리 등 김굉필의 다른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 역시 평생을 은일(隱逸)로 마친 인물이었다. 스승 김굉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의 도학풍의 행동은 아들 유희춘의 문집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김굉필이 노비들에게도 가족처럼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³⁾

2) 이수광, 『증평지』하, 사실.

3) 『海東雜錄』(고전국역총서 『태동야승』 V) 권2, 민족문화추진회. 김굉필은 『예기』의 內則篇을

그 역시 그러하였고, 나이 30세가 되어서도 문밖 출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유정(幽貞)함을 즐기며 두문불출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스승의 『가범』 가운데 「거가의(居家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거가독행십조(居家篤行十條)」를 유희춘에게 남겼는데,⁴⁾ 『티암집』에 수록된 정훈(庭訓: 정훈 10훈과 정훈 내·외편 포함)의 내용은 그 대개가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도학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적 영향은 유계린 외에 최산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유배지 순천에서 제자들을 육성한 김굉필은 조선 성리학의 정맥을 이어 도학의 정통성을 확립한 인물로 평가되어왔다. 이제 그의 도학사상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그것이 호남지역의 사림계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관해 검토할 차례이다. 여기에서 먼저 김굉필의 인물을 논평한 조선 전기의 사료를 통하여 그의 도학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를 자기의 임무로 삼아 은연히 몽주(夢周)의 계통을 잇고 깊이 정주학의 연원을 찾은 자가 바로 김굉필이다. 그의 사람됨은 기국이 단정하고 성행이 닦이고 깨끗하며, 성학(聖學)에 뜻을 두터이 하고 실천에 힘써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공경스럽고, 높이 앉으면 엄연하고 가까이 가면 온연하며 사람을 간절하게 가르쳐서 애연히 지극한 정성을 보이며, 배우러 가는 자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초학』과 『태학』을 가르쳐서 그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고 절목(節目)에 질서가 있었다. 정치가 문란한 세상을 만나서 환난을 당했으나 태연히 처신하여 도답고 공경스런 학문을 처음과 같이하여 늦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밤낮으로 계속하였다. 그에게 배운 자는 사도(斯道)의 본지를 얻어 듣고, 그를 만난 자는 이 사람의 풍의를 앙모하였으며, 금세의 학자가 그를 태산복두처럼 생각하여 덕행을 귀하게 여기고 문예를 천하게 여기며 경술을 존중하고 이단을 억제할 줄 알았으니 임금이 호오(好惡)를 밝히고 취사(取捨)를 살펴서 강기(綱紀)를 정돈하고 풍화(風化)를 선양(宣揚)하고자 하는 것이 실로 김굉필의 힘에 말미암은 것이다. (『충종실록』 권29, 12년 8월 경술)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도록 문장지사(文章之士)는 빈번하게 배출하였으나 의리지학(義理之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굉필은 아조(我朝)에 학문이 끊긴 뒤에 태어나 최초로 성현지학(聖賢之學)을 숭모하여 문장지학을 모두 버리고 『초학』에 침잠하여 명리를 구하지 않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 독행하기 10년에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반드시 예법에 따랐고 존심지경(存心持敬) 하기 30여 년에 진실로 쌓고 힘써 구함이 오래이니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졌으며 행동이 곧 척도요, 언어가 바로 규율이 된 경지에 이르렀다. 불행히 난세를 만나 화를 당한 마당에서도 조용히 죽음에 임했으니 세상에 특별하게 드러낸 일은 없다 해도 그 마음속에 얻은 바는 이로써 더욱 실증이 되는 일이다. 남을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여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이다. (이준경, 『통고유고』 권4, 講釋乙巳己酉獄且請從祀文廟節)

위의 첫번째는 1517년(중종 12) 성균관의 생원 권전이 정몽주와 김굉필의 문묘종사를 청한 상소문의 일부이며, 두번째는 1570년(선조 3) 영의정 이준경이 김굉필과 조광조의 문묘종사를 함께 청한 차자(劄子) 내용의 일부이다. 이 두 가지가 김굉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

본떠서 家範을 짓고 儀節을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보이되 훈계하는 방법으로는 인륜을 더욱 중하게 하였다고 한다. 특히 아래로는 남녀 종들에게도 내외가 분명하게 하였으며, 그들 능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되 절하고 끓어 앉고 일하는 것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게 함으로써 가족과 전혀 차이 없게 하였다.

4) 『티암집』 권4, 정훈, 유희춘이 그 부친의 교훈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기록해둔 것이다.

한 것은 그가 철저한 성리학자로서 몸소 행하는 학문, 즉 실천궁행에 투철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두번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김굉필은 의리지학과 위기지학을 생활화한 도학자였다. 성리학이란 ‘성명의리지학’ 또는 ‘의리지학’이라고도 일컬어지듯이 유학 중에서도 성명·의리·천리·인성 등의 형이상학에 깊이 파고드는 학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기지학’ 또는 ‘도학’으로도 통하는 것으로서 심성의 수양에 철저하고, 그 수양을 바탕으로 의리(바른 도리)를 몸소 실천하는 학문이다.⁵⁾ 따라서 김굉필은 그 자신이 무엇보다도 실천적 도학의 지침서인 『초학』에 깊이 침잠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을 이은 제자들이 모두 『초학』을 중시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5) 윤사순, 『河西의 성리학』, 하서 김인후의 문학과 도학사상,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3, 89쪽.